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1588-1940

201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Contents

03. Thank You Message
04. Q&A 초록우산 질문 있어요!
06. Financial Report 한 닢 동전도 소중히 사용했습니다.
08. 2015 Highlights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들

국내사업보고
12. Survival 생존
14. Protection 보호
16. Development 발달

해외사업보고
20. Education 교육
22. Health 보건의료
23. Water & Sanitation 식수위생
24. Livelihood 자립 지원
25. 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적 지원

26. Advocacy 애드보커시
28. Research for Child Welfare 아동복지연구
30. Campaigns & Fundraising Broadcasts 캠페인과 모금방송
32. Major Events 주요 행사
34. Goodwill Ambassadors 스타 서포터즈
36. Where Green Umbrellas are found 초록우산을 펼친 곳
38. ChildFund Alliance 국제어린이재단연맹

201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발행일** 2016년 3월 7일 / **발행인** 지훈상 / **편집인** 이제훈 / **주소** (우)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기획 및 편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실 / **후원문의** 1588-1940 / **편집** 02-775-9122 / **인쇄** (주)셰퍼드 / **디자인** 디자인퍼플

Thank You Message



후원자님 덕분에 재단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메르스의 여파 속에서도 재단은 후원자님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재단은 국내외 어린이들의 4대 기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을 통해 관련 법안을 개정할 수 있었고,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과 협력해 UN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아동보호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가시적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성교육, 어린이 연구원 운영을 통해 절망의 그늘 속에 있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지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눔음악회〉와 〈락락 페스티벌〉 등 나눔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특히 초록우산 탐구생활 등 후원자님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힘쓴 한 해였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지난 한 해에만 약 6만 분이 새롭게 정기후원에 동참, 지난해 연말 기준 34만 명이 넘는 후원자님께서 어린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계십니다.

2018년이면 재단이 후원자님과 소외된 어린이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7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쌓아온 재단의 노력이 어린이들의 환경 개선에 조금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의 바람을 되새기며 더 많은 일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16년에도 재단은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 어린이들의 행복 한 길만을 바라보고 달리겠습니다.
늘 함께해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 제훈

Question & Answer

초록우산, 질문 있어요!

재단이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님께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더 정확히, 더 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후원자님께서 문의하셨던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A

재단이 지향하는 목표는 세상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후원자님의 마음과 정성이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다양한 참여 활동을 마련해 일방적인 후원이 아닌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한 해 살림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수행하고 삼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어린이의 4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된 지출은 국내사업비, 해외사업비, 운영비, 차기이월금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2014년 삼일미래재단에서 주관하는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아동부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재정보고는 재단 홈페이지→재단소개→투명한 재단살림에서 항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매매한 기사를 봤습니다. 재단은 안전한가요?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대한 후원자님의 걱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며, 각 부서 및 사업기관에 담당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관리, 물리적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childfund.or.kr) 하단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외에 봉사나 문화행사 등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단은 후원자님과 소통하고 나눔의 의미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활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꿈의 무대가 되는 '나눔음악회(매년 가을)'와 '초록우산 탐구생활(후원자 오프라인 정기모임)', '초능력(재능기부 봉사활동)', 후원자 오프라인 참여행사 등이 있습니다. 참여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후원자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단 전국사업기관에서 봉사활동도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반디 홈페이지(vandi.childfund.or.kr)에서 참여 가능한 봉사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후원자들과 지원받는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따뜻한 나눔과 감동이 있는 후원자님과 지원 어린이의 이야기는 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초록우산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 더보기 ▶ 플러스친구 ▶ '어린이재단' 검색 및 친구 추가
· 페이스북 facebook.com/childfundkor · 모바일 m.childfund.or.kr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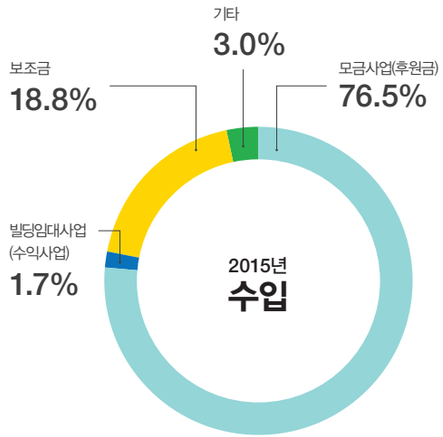
재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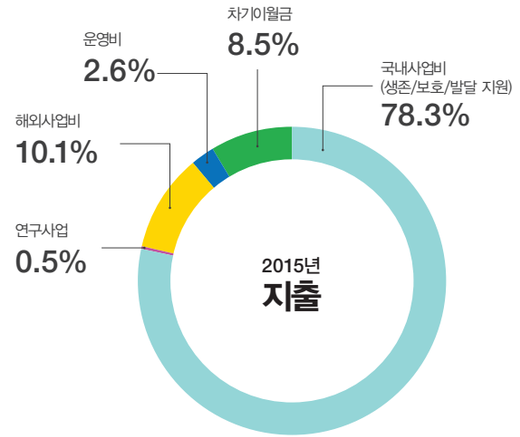
Financial Report

한 닢 동전도 소중히 사용했습니다

재단의 한 해 살림은 재단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자님의 마음이자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입니다.
동전 한 닢을 쓰더라도 몇 배의 가치를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일,
그것이 재단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수입

구분	금액(백만 원)	구성비(%)	내용
모금사업(후원금)	122,855	76.5	재단의 아동복지사업을 후원하는 후원자, 후원기업, 단체들의 정기 및 일시 후원금
빌딩임대사업(수익사업)	2,683	1.7	빌딩임대사업 수입
보조금	30,200	18.8	보조금
기타	4,902	3.0	이용자부담금, 잡수입, 전년도이월금
총계	**160,640**		

지출

구분		영역	금액(백만 원)	구성비(%)	내용
복지사업비	국내사업비	생존 지원 보호 지원 발달 지원 지역사회개발 등	125,796	78.3	빈곤가정 지원, 의료 지원, 학대피해아동보호, 가정위탁보호, 방과후보호, 실종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재능계발지원, 심리치료, 어린이 도서관, 애드보커시(아동권리옹호), 사례관리, 장애인 복지 등
		연구사업	701	0.5	연구조사 및 아동복지포럼 등
	해외사업비	해외아동 지원 및 지역개발	16,237	10.1	해외아동 지원 및 지역개발 등
운영비			4,232	2.6	운영비
차기이월금			13,674	8.5	2016년도 사업준비금
총계			**160,640**		

구분	영역	금액(백만 원)	구성비(%)	내용
국내사업 중	생존 지원	38,493	30.6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지원, 급식 지원, 의료 지원, 보육 지원, 학습 지원 등
	보호 지원	28,972	23	모든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 실종예방·성폭력예방·아동학대예방교육 등
	발달 지원	42,444	33.8	아동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재양성, 오케스트라, 장난감 도서관, 도서관, 심리치료, 인성함양교육, 애드보커시(아동권리옹호) 등
	지역사회개발 등	15,887	12.6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북한 지원 등
	총계	**125,796**		
해외사업	아프리카 아동 지원 및 지역개발	8,423	51.9	남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케냐,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 가나
	아시아 아동 지원 및 지역개발	5,249	32.3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네팔
	중남미 아동 지원 및 지역개발	625	3.8	볼리비아
	긴급구호(인도적 지원) 등	1,940	12	시리아, 네팔, 남수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총계	**16,237**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투명한 회계관리 및 조직 운영, 성실한 사업 보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법률 제12844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사업을 진행하며 사용 결과를 보고합니다.
*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삼덕회계법인,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재정 운영을 검증받습니다.
* 아동복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아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아동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 우리 재단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국세청이 제시한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결산 내역을 대외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5 Highlights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들

흰 도화지에 선과 색이 모여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되듯
2015년 우리가 달려온 365일간의 여정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됐습니다.
후원자님과 함께여서 가능했던 변화 중 의미 있는 몇 가지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어린이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주했던 2015년, 뜻깊은 성과가 있어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최종 통과

12월 9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종 통과했습니다. 폐쇄 위기에 있던 전국의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재단은 본 법률안 통과를 위해 5월부터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국민 6만 9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6월에는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과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식 기자회견을 했으며, 안전행정위원회에 어린이 놀이터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UN의 SDGs에 '아동보호' 포함

9월,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아동보호'가 최종 포함됐습니다. 재단은 2013년부터 유엔의 아젠다에 '아동보호'를 포함시키고자 free 캠페인을 진행했고, 3년간 세계 157개국, 68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또, 폭력과 착취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듣고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아동 대상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해 50개국, 1만 6천여 명의 아동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 및 여러 국제포럼을 통해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피력한 결과, 지구촌이 아동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15년간 전 세계는 폭력과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연맹 가입 이후 최초 한국 회의 개최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 연례회의가 11월 9일부터 나흘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연맹 CEO, 이사 및 관계자 37명이 방한한 이번 회의는 연맹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아동복지연구소, 아동실종 및 학대 관련 서적 출판

국내 실종아동찾기 사업 30년, 실종아동보호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출판한 〈아동 실종의 이해〉는 1986년부터 아동 실종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온 재단과 전문가들이 모여 아동 실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뤘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주제로 한 동화 〈아빠가 미안해〉는 부모와 자녀가 학대와 폭력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르완다 국가사무소 개소

재단은 아프리카 르완다 어린이들을 지원하고자 11월, 르완다 이민국에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록을 완료하고, 12월에는 르완다 교육부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재단은 르완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키갈리(Kigali)주 가사보(Gasabo)시 영유아 교육 및 발달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기반을 구축했습니다. 2016년에는 어린이재단 르완다(ChildFund Rwanda) 국가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4회 나눔음악회,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후원자 3,000여 명을 초청해 '제4회 나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재단 홍보대사 김경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나눔음악회에는 가수 알리, 박상민, 장혜진과 성악가 우주호 씨 등이 함께해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나눔음악회는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후원자와 후원 대상 어린이들이 교류할 기회이기에 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1회 미래세대상 수상

12월 3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67년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미래세대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마련한 미래세대상은 미래세대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노력한 인물,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재단은 지난 7년간 자신의 꿈과 재능을 위해 노력하는 아동 237명에게 총 18억9천6백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잠재력 향상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후원자님과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고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5만 후원자가 쓴 초록우산

매월 정기 후원에 동참하는 후원자가 2015년 4월을 기점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34만 6,091명의 후원자가 국내외 빈곤 어린이들을 돕고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 활동 박차

재단은 후원자 소통 강화 및 사업 이해 증진을 위한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 '초록우산 탐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을 탐구하고 더 나은 방향과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이 프로그램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162일간 50명의 후원자가 모여 정기모임과 봉사활동, 어린이를 위한 공익프로젝트까지 나눔으로 하나 되어 열정을 쏟았습니다.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지원 약 9억 원 투입

4월 25일 발생했던 네팔 대지진 피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긴급구호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구호지원금 약 9억 원(878,00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피해 지역인 카트만두, 다딩, 신두팔촉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에게 텐트와 의류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학교 구축 및 학습물품도 지원했습니다. 신두팔촉 지역에는 어린이 중심 공간(Child-Centered Space)을 설치해 트라우마를 치료했고, 병원에 갈 수 없는 가족을 위해 이동의료 진료팀을 파견, 의료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는 무너진 학교를 재건축하고, 이동진료 서비스, 아동심리 지원을 추가로 수행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갈 계획입니다.

기부송 '어른 맞니'와 색다른 기부 아이템 '기부방방'

3월 4일, 가수 김예림이 재능기부로 참여한 착한 음원 '어른 맞니'가 공개 12시간 만에 올레뮤직, 다음뮤직 등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른 맞니'는 음원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이 재단에 기부되는 신개념 기부송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HS애드와 함께한 '기부방방'은 기부 행위 자체에 재미와 보람을 주는 캠페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3월에 서울을 시작으로, 5월에는 성년의 날을 맞이해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진행됐으며, 이후 전국 대학 캠퍼스 등지에서 운영되며 색다른 기부 아이템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원한 어린이
557,274명

2015년 한 해 동안 소외된 어린이들을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2015년 누계 실인원)

국내사업보고
Domestic Programs



생활비 지원
38,827명

저소득층 위기가정 어린이들이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의식주, 병원비, 학습비를
지원했습니다.



인재양성
125명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 예술, 체육 분야의
재능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꿈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도 재단은 빈곤과 학대, 방임, 차별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수는 2015년 한 해에만 557,274명에 이릅니다. 생존과 직결된 의식주 지원에서부터 아동복지 실태 연구,
놀이터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재단은 후원자, 기업, 정부 등과 손잡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실종예방
138,412명

실종유괴 어린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발달단계에 맞추어 실종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동폭력예방
200,083명

아동 대상 폭력과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이에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인성교육
83,710명

복지관 등 전국 24개 기관에서 만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30,232명

성장에 기본이 되는 놀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전국 15개 기관에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대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Survival

생존

우리 주변에는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꿈보다 포기라는 말을 먼저 배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기초적인 생계비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급식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한 생활비 지원
전국 22개 지역본부 및 16개 복지관, 10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위기가정 어린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주거비, 난방비, 생필품비 등 생계에 밀접한 지원을 포함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긴급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을 포기하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교재, 교복 및 학원비도 지원했습니다.

밥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급식 지원
아이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복지관을 통해 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생활비 지원 아동
38,827명

급식 지원 아동
1,443명

사랑으로 부쩍 자란 저신장증 웅기
"안녕하세요.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신웅기 엄마입니다.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면서 생활하기만도 벅찬 상황에서 우리 웅기가 성장호르몬결핍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린이재단의 도움을 받게 돼 병원도 다니고, 약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병원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던 웅기는 이제 매일 맞는 주사에도 울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웅기는 배드민턴 선수가 꿈이에요. 재단이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신 꿈과 희망, 평생 잊지 않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Protection

보호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 폭력, 학대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과 학대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단은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예방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위탁가정 연계 지원 아동
12,027명

보육 지원 아동
11,344명

부모 교육 대상
733명

중증장애아 지원
264명

학대피해 지원 아동
2,147명

일시보호(그룹홈) 지원 아동
179명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예방교육
200,083명

실종 및 유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138,412명

실종아동 복귀와 실종자 가족 지원
481명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탁가정 연계
전국 10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어린이가 또 다른 가정의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위탁부모에게는 부모 교육 및 자조 모임, 상담 등을 제공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으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친부모에게는 자립을 위한 자원 연계 및 상담을 진행해 자녀와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찬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보육 지원
가정 내 보호자가 없거나 방과 후 안전하게 보호받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등을 통해 방과 후 보호(간식 및 급식 지원, 위생 지도, 건강 및 영양 관리), 교육(학습 지원, 현장학습), 문화활동(야외 활동),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을 진행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이의 우주인 부모를 위한 교육 시행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부모의 작은 변화를 통해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로 변하리라는 믿음으로 전국 18개 복지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초록우산 부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로서의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자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방법을 배웠습니다.

중증장애아도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
장애아동들이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특수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학대로 상처받은 어린이 보호
7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피해 현장에 개입해 피해 어린이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했습니다. 어린이가 학대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학대가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그룹홈에서 생활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개발한 아동심리정서지원 특화 프로그램(우리가 만드는 세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 자아 성장을 도왔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예방교육
아동 대상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극과 시연이 포함된 'CAP(아동폭력예방)', 'NO–Bullying (학교폭력예방)', '톡톡! 말할 수 있어요!(아동 성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해 권리 인식 및 폭력 상황을 분별하고 예방할 힘을 키웠습니다. 또한 아동 주변의 부모, 교사 등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이 든든한 지지망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9개 기관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예방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종 및 유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매년 증가하는 실종 · 유괴 사건을 예방하고자 미취학 어린이에게 발달 연령에 맞는 예방법과 위험 상황일 때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처법을 교육했습니다.

실종아동 복귀와 실종자 가족 지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실종아동의 가족에게는 상담 및 심리적 지원을 했습니다.

Development

발달

유년 시절이 중요한 이유는 자아를 형성하고 꿈을 찾아가며
미래의 자신을 형성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발달기인 어린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건강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
968명

꿈과 재능을 모두 키우는 인재양성
125명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심리치료
2,617 명

장난감 도서관 이용 아동
30,232명

사회교육 지원 아동
3,395명

학습능력증진 지원 아동
663명

인성교육 지원 아동
83,710명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문화예술교육

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즐겁게 음악을 배우면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재단은 전국에 총 9개의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와 4개의 '초록우산 드림합창단'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자존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꿈과 재능을 모두 키우는 인재양성

학업 · 예술 · 체육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있으나 사회 ·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재능계발 기회를 제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재능을 계발 · 발전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심리치료

심리, 정서 및 발달상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13개 복지관과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의 아이존에서 심리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양천 아이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며 배우도록 장난감 도서관 운영

전국 15개 사업기관을 통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온 가족 놀이터이며 소통의 공간입니다. 장난감 대여는 물론 놀이 교육, 가족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장난감을 매개로 한 안전한 보호 공간을 제공합니다.

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학습능력증진교육

전국 16개 복지관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 분야, 피아노 · 바이올린 등 예술 분야, 요리 · 레크레이션 등 문화 분야와 같이 어린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를 선정해 교육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개발해 운영하는 학습능력증진서비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어린이들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성장하도록 인성교육

24개 기관에서 만 7~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초록우산 인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12가지 인성요소(기쁨, 감사, 성실, 존중, 약속, 어울림, 용기, 정직, 협동, 사랑, 배려, 나눔)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을 원하는 기관(초등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문강사가 방문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인 참여형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해외사업보고

Global Programs



해외 아동 지원 사업

62개

총 62개의 세부사업을 진행, 해외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교육

37,384명

빈곤, 인식 부족, 인프라 부족 등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보건 의료

27,371명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 인프라 구축, 의료진 역량 개발,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태어난 국가나 인종,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교육, 보건의료, 식수, 자립, 인도적 지원을 통해 세계의 어린이들이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실의에 빠진 어린이들,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어린이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원 국가

20개국

2015년 한 해 동안 총 20개 국가에서 교육, 식수위생, 보건의료,
자립 지원, 인도적 지원, 지역개발 사업을 펼쳤습니다.



인도적 지원

150,132명

내전, 자연재해로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지원하고,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식수위생

37,684명

오염된 식수원으로 아프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식수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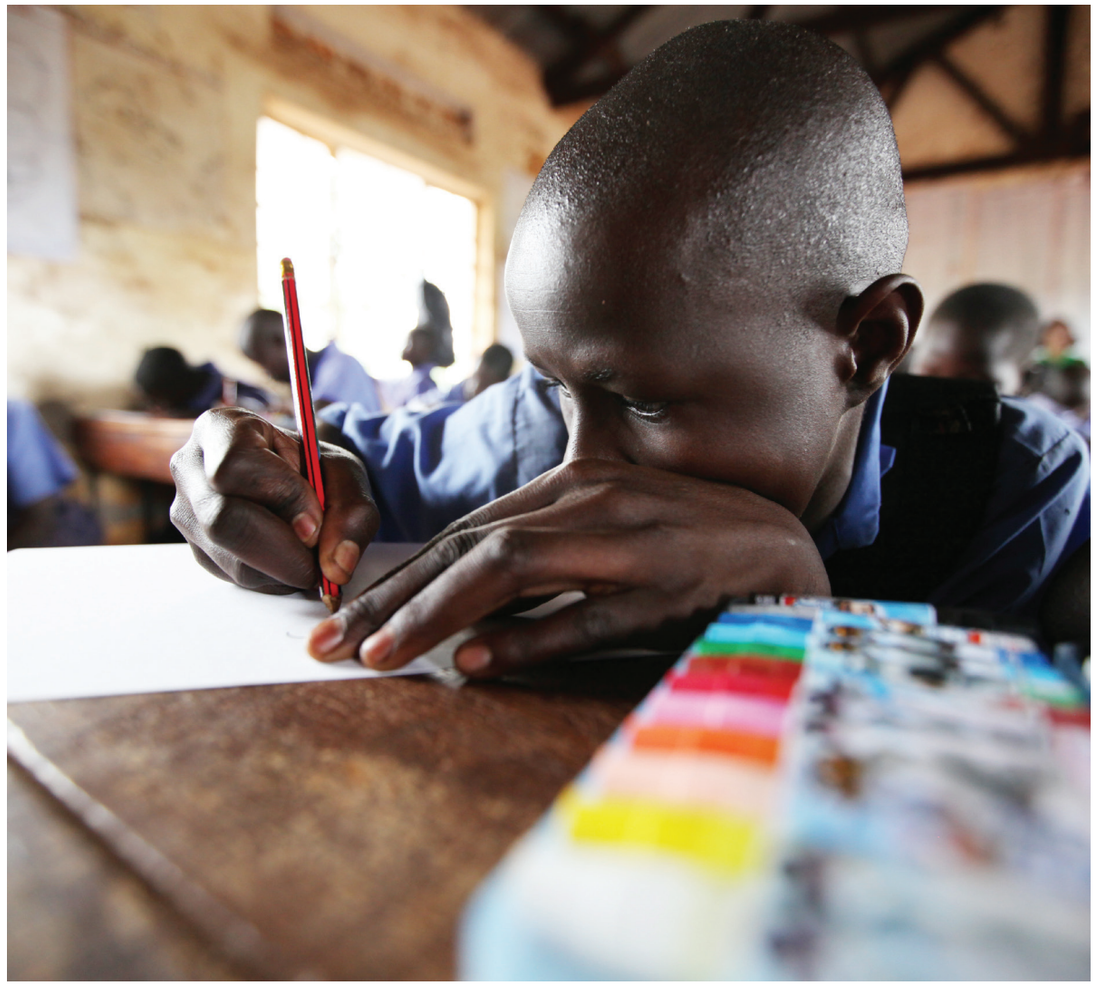
1,421명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및 생계수단을 지원했습니다.

Education

교육

지구촌 곳곳에는 가난과 전쟁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어린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재단은 빈곤, 성별, 인종, 종교, 장애로 차별받는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남수단 IDP 캠프 교육 사업 지원
800명

케냐 여아 복지 사업 지원
986명 (0~19세 여자아동)

에티오피아 아동 친화적 학교 지원
5,441명

캄보디아 뚜울소크람 초등학교 교육 지원
578명

스리랑카 북부지역 초등학교 개선 지원
4,696명

인도네시아 람풍주 영유아발달센터 지원
1,000명

"이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요!"
그동안 학교는커녕 소를 돌보면서 집에서만 지냈어요. 그런데 멜리조 학교에서는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아요. 학교에 올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아요. 한국의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수단 니믈레 멜리조 학교 학생,
알렉루알 다우(AlekLual Dau)

남수단 니믈레 멜리조 IDP 캠프 교육 사업
니믈레 지역의 멜리조 국내 실향민(IDP) 캠프에서 교육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교실 건축, 칠판, 교과서, 공책 등 각종 교재교구와 축구 골대, 줄넘기 등 체육수업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교사 및 학부모회의 역량 강화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심리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계속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케냐 쿠쿠나레토이 여아 복지 사업
케냐 카지아도 지역 마사이 부족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결혼을 예약하고, 10~15세 사이에 할례를 치르며, 소와 맞바꿔 결혼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빈곤, 유목 생활은 여아의 지속적인 교육을 어렵게 합니다. 재단은 여아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기숙사 환경 개선, 영양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성교육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해 직업훈련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동 친화적 학교 지원 사업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굴렐레, 예카 지역은 매우 가난한 지역으로,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이 모여 사는 한국인 마을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부모들은 수입과 교육 수준이 낮고 생계유지를 위해 자녀의 교육을 쉽게 포기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가 학대와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담장 설치, 교육 기자재 지원, 식수 위생시설, 급식실 지원을 통해 아동 친화적 학교로 개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람풍주 영유아발달센터 개보수 지원 사업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육부 예산의 약 1%만 영유아발달센터 운영에 투자할 만큼 영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이로 인해 낙후된 환경에서 유아교육이 이뤄집니다. 재단은 람풍주에서 가장 열악한 영유아발달센터 8곳을 선정하고 시설을 개보수해 약 1,0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 및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캄보디아 뚜울소크람 초등학교 지원 사업
캄보디아 스바이리엥 지역은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실과 교육 자재 등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양질의 교육이 어려웠습니다. 재단은 해당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5개의 교실을 갖춘 뚜울소크람 초등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읽기 자료, 학습 교재 등 교육 기자재를 제공했습니다.

스리랑카 북부지역 초등학교 개선 사업
스리랑카 북부지역 물라티부는 내전과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협력해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 친화적 교실 및 도서관 건축, 아동 중심 교육법 확대를 위한 교사 훈련, 아동 교육권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증진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Health

보건의료

보건의료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천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재단은 질병 예방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질병 퇴치 사업을 진행해 지구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모성보건 및 청소년 생식보건 증진 사업 지원

21,592명

우간다 찬콴지 말라리아 퇴치 사업 지원

3,671명

미얀마 양곤 결핵 퇴치 사업 지원

3,900명 (결핵치료)

792회 (보건교육)

동티모르 N2N 모자보건 사업 지원

7,500명

에티오피아 모성보건 및 청소년 생식보건 증진 사업

에티오피아의 모성사망률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유목민족이 대부분인 판탈레 지역은 유목생활의 전통으로 인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지역 보건소를 거점으로 산모의 산전후 관리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출산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소년 및 지역 구성원을 중심으로 생식보건과 여성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판탈레 지역에서의 모성사망률 감소 및 생식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찬콴지에서 말라리아 퇴치 사업

우간다 찬콴지 내 키유니 지역의 주요 발생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말라리아(42%)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말라리아 진단, 치료, 예방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과 방문 진단 및 치료, 모기장 보급 등을 통한 예방 활동으로 말라리아 감염률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양곤 교외 지역 결핵 퇴치 사업

미얀마 제1의 도시 양곤에서도 빈민층 밀집도가 높은 양곤 교외 지역은 보건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재단은 양곤 인근 랑타야 지역 클리닉에 결핵 진단 장비를 지원하고, 클리닉과 함께 결핵 검사 및 치료, 주민 보건교육 등 결핵 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N2N 모자보건 사업

동티모르는 낙후된 의료시설과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부족으로 영유아 및 산모 사망률이 높습니다. 재단은 KOICA와 협력해 라우템 지역의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지역의 낙후된 보건소 시설을 개보수하고, 산파에게 출산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ater & Sanitation

식수위생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안전한 식수를 확보해 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 개선과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간다 진자 지역 식수지원 사업

809명

볼리비아 사파하끼 지역 식수 및 위생환경 개선 지원

11,000명

우간다 진자 지역 식수지원 사업

우간다 진자 지역의 카물리 마을은 인구 중의 절반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식수원은 1km 이상 걸어야 하는 먼 거리에 있어 이곳 사람들은 연못이나 샘물, 강물 등 비위생적인 식수원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동물들도 사용하는 이 물로 인해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은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재단은 식수지원 사업으로 2개 마을에 식수 펌프를 설치해 안전한 식수를 확보했고, 위생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볼리비아 사파하끼 식수 및 위생환경 개선 사업

재단은 KOICA와 협력해 볼리비아 사파하끼 지역의 식수 부족 해결을 위해 마을 수도 설치 등 통합식수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 위생시설(화장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학교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모델 지역사회에 가족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청소년 리더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위생습관 워크숍과 지역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지역주민들이 손 씻기, 태양광을 이용한 물 소독, 올바른 쓰레기 처리와 같은 위생습관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목마른 사파하끼에 샘솟은 희망"

사파하끼 지역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그나마 어렵게 구한 물도 염분이 높아 식수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 화장실 보급률도 매우 낮아 강이나 들판 등 야외 화장실을 이용해 위생환경도 좋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수인성 질병 피해가 큰 지역이었습니다. 사업 이후 사파하끼 지역에서는 집에서 매일 깨끗한 물을 사용해 옷을 빨고, 샤워하고, 요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Livelihood

자립 지원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다라학교 지원 사업은 환경 개선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지원의 하나입니다.

베트남 사랑의 집짓기 지원
12가구

세네갈 티에스 다라학교 지원
362명

베트남 2015 사랑의 집짓기 사업

베트남은 열악한 배수시설로 인해 적은 강수량에도 쉽게 침수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빈곤층은 침수 위험이 높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3개월 동안 베트남 3개 지역에서 자연재해나 외부 위험요소에 취약한 12가구를 선정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안전한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세네갈 티에스 다라학교 축사 지원 사업

다라플러스 사업은 2011년부터 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기금 지원으로 진행된 다라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다라학교는 이슬람 경전 코란을 가르치는 비정규 학교로, 서아프리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교육기관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다라플러스 사업은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가축을 지원해 다라학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적 지원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 하지만 전쟁과 분쟁,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난 등 원하지 않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쿠르디스탄 내 시리아 난민아동 지원
1,040명

터키 내 시리아 난민아동 교육 지원
1,750명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사업 지원
30,781명

남수단 내전 난민 식수위생 지원
4,196명

인도네시아 학교 중심 재난위험 경감 사업 지원
2,045명

쿠르디스탄 내 시리아 난민아동 지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쿠르디스탄으로 피난 온 시리아 난민아동과 가족을 위해 아동 친화적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하고,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월동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난민아동의 보호와 권리 향상을 위한 포스터와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시리아 난민아동 교육 지원

시리아 내전으로 국경을 넘어와 터키 남부의 난민촌에서 지내는 아동과 캠프 밖에서 지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월동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사업

재단은 네팔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긴급구호 전문요원을 파견해 카트만두, 다딩, 신두팔촉 지진피해 지역에 식량과 주거용 텐트,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의류를 제공했습니다. 또, 임시학교 구축 및 학습물품을 지원해 어린이들이 배움을 지속하고 친구와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동 중심 공간(Child Centered Space)을 설치해 어린이들과 가족의 트라우마를 치료했으며,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이동 의료팀을 파견했습니다. 재단은 2016년에도 무너진 학교를 재건축하고, 이동진료서비스를 추가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남수단 내전 난민 식수위생 지원

2013년 12월에 발생한 남수단 내전으로 고향을 잃고 우간다 국경 근처의 난민촌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가족에게 깨끗한 식수와 환경을 제공하고자 KOICA와 함께 지하수 펌프, 화장실, 임시샤워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스리랑카 홍수 피해 아동 식량 지원

2014년 12월 스리랑카 전역에 내린 폭우로 22개 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며 총 106,78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단은 KOICA와 함께 홍수로 인해 양질의 영양 섭취가 어려운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해 식량을 지원하고 학교 급식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홍수 피해 아동이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물품을 지원하고,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체육 활동을 포함한 심리사회 지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학교 중심 재난위험 경감 사업

인도네시아는 지진, 홍수, 쓰나미, 화산 등 자연재난 피해가 많은 곳입니다. 재단은 KOICA와 함께 학교 교사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법과 대피법, 응급처치법 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 대응계획을 만들고, 설립된 계획에 따라 모의대피 훈련을 진행했으며, 응급키트와 경보장치도 지원했습니다. 학교 건물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실 및 구조물의 안전성 조사도 수행했습니다.

Advocacy

애드보커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도는 해당 사회의 시민의식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재단은 어린이들의 시각과 눈높이로 최선의 이익을 고민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사회를 깨우기 위해
2015년 미디어, 시민단체와 연대해 다채로운 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동보호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아동보호'를 포함시키기 위한 free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3년간 전 세계 157개국에서 모인 68만여 건의 서명과 지지를 바탕으로 유엔 및 여러 국제포럼을 통해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아동보호'가 SDGs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향후 15년간 전 세계는 폭력과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참여권 증진
아동들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5년에는 유니세프,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아동권리 스스로 토론회'를 열어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아동권리 스스로 토론회'는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6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토론회 결과를 취합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아동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책 · 제도 개선
아동관련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아동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전국 천여 개의 놀이터가 동시에 이용 금지돼 어린이의 놀 권리가 침해된 것과 관련해 국가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놀이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전국의 영세 놀이터가 다시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공약 이행을 최초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해 공공도서관에 배포함으로써 아동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Research for Child Welfare

아동복지연구

어린이들을 위한 일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사업 수행의 원천은 정확한 아동복지 실태 파악과 전문적인 연구조사에 있습니다.
재단은 2011년 아동복지기관 최초로 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학계, 전문기관과 협력해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업 실천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 실천 근간이 되는 연구조사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 지원아동의 현황과 발달경로에 관한 연구〉, 〈기프트카 캠페인 평가연구〉,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정책 유형과 아동웰빙의 관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본 남북한 아동관의 비교〉 등 총 13건의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소에서 수행된 총 4건의 연구물을 학술지에 게재해 연구 결과의 공신력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더불어 〈아동실종의 이해〉, 〈아빠가 미안해〉 등 재단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아동복지 현주소 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
〈2015 아동지표〉는 다양한 아동 관련 통계자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8개 챕터(인구, 가족구조 및 생활, 건강, 빈곤, 사회적 보호, 안전, 교육, 사회참여 및 활동)로 구성해 복지와 모금 사업의 기본적인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5년째 발간 중입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전략사업 일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해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 보장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사회에 보고하고, 아동옹호 활동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실태조사 및 연구를 2년간 진행했습니다. '아동의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들의 권리현황을 밝혀 재단만의 차별성 있는 지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진연구자 발굴 및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역량 있는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 및 지원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물을 생산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팀의 연구를 지원했으며, 그 중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가 최우수논문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린이 연구원 운영 및 아동 참여 사업 매뉴얼 개발
어린이 연구원(Greeny)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의 목소리를 통해 아동 권리 옹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3기 어린이 연구원을 위촉해 〈우리는 현재에도 주인공〉을 테마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태로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또한 〈참여사업 '어린이 연구원(Greeny)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보고서를 통해 1기~3기 동안의 개발 과정과 효과성 검증 결과를 다뤘습니다.



아동복지포럼 통해 공론의 장 마련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방안 모색〉, 〈아동 행복과 가족공동체〉를 주제로 5월과 10월 총 2회에 걸쳐 아동복지포럼을 실시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시민들이 아동 행복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나눔지식 네트워크'를 발족해 나눔 지식의 임팩트를 강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6월에는 〈미래사회 전망과 씽크탱크로서 민간연구소의 역할〉을 주제로 첫 공동기획포럼을 열어 나눔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습니다.



Campaigns and Fundraising
Broadcasts

캠페인과 모금방송

국내외 어려운 현실에 처한 어린이들의 삶을 바꾸는 일은 재단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재단은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삶과 현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요 언론사와 연계, 방송을 진행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노력했습니다.





워터포차일드 캠페인
3월 22일 여의도 물빛광장에 '물 뜨는 아프리카 어린이' 조형물 설치를 시작으로 워터포차일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 식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단을 홍보했으며, 3,054명의 정기 후원자와 165,552,949원의 후원금(2015년 12월 31일 기준)이 모여 우간다 및 에티오피아에 식수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인성밥상 공익캠페인
12월 5일 공익CF 인성밥상 편을 선보였습니다. 스타셰프 샘킴이 재능기부로 출연한 이 CF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상에서 어린이의 인성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제작됐습니다. 재단은 전국 만 7~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눔, 협동, 존중, 배려' 등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생존 지원 캠페인
2014년 11월 20일 세계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영유아 생존지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본 캠페인을 통해 영유아 생존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1,236명의 정기 후원자와 130,264,500원의 후원금(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모집해 동티모르를 비롯한 해외 모자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 산타원정대
11월 30일 '어린이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제로 산타원정대 발대식을 통해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원정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22개 지역본부의 산타원정대를 통해 기업, 단체, 시민들의 후원 릴레이를 비롯해, 선물 포장을 진행하고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평소에 쉽게 사거나 가질 수 없는 선물들을 조사해 각 지역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했으며, 총 642명의 정기후원자와 357,808,170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MBC 〈나누면 행복〉
10회의 특집방송으로 진행한 MBC 〈나누면 행복〉을 통해 총 1,886명의 후원자님께서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셨고, 이를 통해 924,730,000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30명의 어린이를 비롯,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1990년부터 지난 25년 동안 이어온 프로그램으로, 백혈병, 소아암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약 300억 원의 성금을 모금, 약 9,000명의 환아를 치료해왔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120분간 진행된 생방송을 통해 1,587명이 정기 후원을 약속해 주셨고, 총 1,599,120,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MBC 〈희망 더하기〉
에티오피아(조민수), 우간다(백성현, 손은서), 네팔 대지진의 해외 특집방송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면한 고통을 전했습니다. 2,071명의 후원자님께서 어린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조성해주신 후원금 1,024,035,000원으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에 지원했습니다.

SBS 〈희망TV SBS〉
지구촌 빈곤 어린이의 생계는 물론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단은 2011년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 7개국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학교 12개를 지었고, 국내 3곳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개보수했습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고두심 나눔대사가 케냐를 방문했고, 전광렬, 박수진 가족홍보대사가 에티오피아를 방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4,322명이 후원하고 124,246,000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매주 화, 수요일과 일요일마다 장애와 희귀병으로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어린이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1,525명이 후원에 동참했고 43,695,000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KBS 〈희망로드대장정〉
배우 최불암, 손호준이 함께한 〈희망로드 대장정〉은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어린이들을 만나 후원자님들과 솔루션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3,191명의 후원자님들이 해외 어린이 돕기에 동참했으며, 총 1,576,735,200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MBC 라디오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MBC 라디오 〈여성시대〉와 함께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해결방안을 전문가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집중조명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직접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개해 아동권리에 대해 청취자들과 공유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KBS 라디오 〈희망충전 대한민국〉
재단은 KBS1 라디오와 함께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ARS 모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총 516,783,000원의 후원금(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모집했으며, 53명의 어린이(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기준)를 지원했습니다.

Major Events

주요 행사

어린이들은 후원자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후원자는 나눔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습니다.
재단은 이것이 단지 두 사람의 인연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큰 감동을 사회에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15 초록우산 천사데이
10월 4일, 청계광장에서 초록우산 천사데이 기념식을 갖고 선행을 베푼 숨어있는 후원자를 선정해 천사 후원자로 표창했습니다. 또한 청계천 상단에 〈2015 초록우산 천사데이〉를 통해 후원에 참여한 후원자들의 이름을 1,004개의 우산에 달고, 이를 전시해 시민들에게 큰 볼거리도 선사했습니다. 본 캠페인으로 965명의 정기후원자와 134,775,800원의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제4회 나눔음악회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후원자 3,000여 명을 초청해 '제4회 〈나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나눔음악회는 가수 알리, 박상민, 장혜진과 성악가 우주호 씨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나눔음악회는 후원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후원자님과 후원 대상 어린이들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발대식
7월 23일,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업무협약을 경북도청에서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경북지역과 전남지역의 세대 화합, 더 나아가 상호교류 분위기를 조성해 영 · 호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한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경북 23개, 전남 22개의 시 · 군 및 재단의 공동 협력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간 · 세대 간 · 계층 간 화합과 국내 저소득 어린이의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 지역 간 어린이 교류행사 등이 마련됐습니다.





제11회 이홍렬의 락락 페스티벌
11월 20일, 제11회 이홍렬의 〈락락 페스티벌〉이 3,000명이 넘는 후원자 및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습니다. 홍보대사 이홍렬의 진행으로 가수 조항조, 혜은이, 신효범, 장미여관, 시크릿, 추가열, 아이큐, 성악가 조봉현, 가야금 연주그룹 가야랑 등이 출연했으며, 야구선수 이대호의 야구배트, 이외수 작가의 그림, 가수 시크릿의 액세서리와 장미여관의 멤버 육중완 등이 기증한 애장품의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2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으며, 215명이 정기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제4회 행복한 하루
11월 17일, 배우 전광렬 가족이 롯데월드몰 하드록 카페에서 에티오피아 어린이 지원을 위한 자선 콘서트 〈행복한 하루〉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행복한 하루〉는 개그맨 김준호가 MC를 맡았으며 가수 옴므, V.O.S, 리멤버러스가 자선 공연을 펼쳤습니다. 350여 명의 관객과 함께한 이번 콘서트를 통해 1억4천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Goodwill Ambassador

스타 서포터즈

스타들이 실천하는 크고 작은 기부와 나눔은 누군가에게는 후원을 시작할 계기가,
누군가에게는 착한 실천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한목소리를
내주신 스타 서포터즈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후원회장 최불암
후원자를 대표하는 전국후원회장으로서 1985년 후원회장에 위촉돼 2015년 위촉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항공과 함께한 〈어른이날〉 공익 CF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KBS 〈희망로드 대장정〉에 출연해 케냐 어린이 돕기를 호소했으며, 연극 〈시 유 어겐〉을 통한 나눔 참여 등 활발한 재능기부로 국내외 어린이들의 아버지가 돼주셨습니다.



홍보대사 이홍렬
올해 11회를 맞은 이홍렬의 〈락락 페스티벌〉이 부산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조항조, 장미여관, 시크릿 등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한 이번 공연에는 약 3,000명의 후원자가 다녀갔고, 2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여 많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눔대사 고두심
한국은 물론 해외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자리라면 어디든 달려간 고두심 나눔대사는 2015년, 아프리카 케냐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SBS 〈희망TV〉에도 출연해 많은 시청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홍보대사 김경란
자신의 결혼식, 그 행복한 순간을 남수단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2015년 1월 결혼식을 올리며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남수단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월에는 더 좋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남수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2016년 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홍보대사 염정아 · 허일
2014년에 시작한 유기아동 지원 캠페인 〈베이비박스 그 후〉 참여에 이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무연고 어린이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자, 무연고 어린이 지원을 위한 〈세상이 품다〉 캠페인 홍보영상에 재능기부 모델로 참여했습니다.

홍보대사 추신수
국내 체육 꿈나무와 환아 가정을 돕고자 스포츠용품회사 나이키와 함께 1억1천만 원을 기부해 어린이를 위한 기부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한 2014년에 지원했던 어린이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꿈과 용기를 전달하며, 더 많은 어린이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홍보대사 뽀롱뽀롱 뽀로로
어린이들의 영원한 우상인 뽀로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실종유괴예방 등 재단의 다양한 캠페인에 활용돼 어린이들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제 어린이박람회에서 어린이들의 큰 관심을 끌어내며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홍보대사 최성봉
기독운영이사회를 통해 대구 소재의 교회를 방문해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홍보대사 강영호
2015년 4월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만나고자 직접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신두팔촉, 카트만두 지역에서 길거리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을 만나 아픔을 보듬었으며, 2016년 2월 해당 지역을 재방문했습니다.

홍보대사 이외수
매년 이홍렬의 〈락락 페스티벌〉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기증해온 이외수 홍보대사는 항암치료 중에도 그 나눔을 이어나갔습니다. 올해 기증한 작품 '메기'는 부산의 후원자에게 2,000만 원에 낙찰돼 락락 페스티벌 최고 경매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낙찰된 후원금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홍보대사 꼬마버스 타요
꼬마버스 타요는 지난 2014년부터 재단의 홍보대사로 선정된 이후 각종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모델로 활동하며 어린이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각종 캠페인의 홍보물 제작에 사용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홍보대사 김윤진
2014년 실종아동돕기를 위한 재능기부 내레이션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은 후, 국내외를 오가는 바쁜 활동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영화 〈국제시장〉 1,2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1,5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12월에는 부산에서 열린 산타원정대에도 동참했습니다.

홍보대사 전광렬 가족
2015년 8월 에티오피아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해외 어린이를 돕고자 제4회 행복한 하루를 개최했습니다. 가수 및 동료 배우, 다수의 후원자를 직접 초대했으며, 총 350여 명이 참석해 총 1억 5천여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후원금은 에티오피아의 영유아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 생존 및 교육활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엄태웅
2015년 5월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실종아동예방을 위한 그린리본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대중과 소통하고, 재단 홍보영상을 통해 목소리를 기부하는 등 재능을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친선대사 손은서
2014년 우간다 해외자원봉사활동을 인연으로 2015년 1월에 재단의 친선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다양한 나눔 행사에 함께해 후원자와 소통했으며, 5월 청소년을 위한 해외문화탐방의 멘토로도 활동했습니다.

친선대사 백성현
2014년 우간다 봉사활동을 계기로 재단 친선대사가 된 백성현은 자원봉사 참여 등 지속적인 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한사랑장애영아원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으며 9월에는 제4회 나눔음악회에 참여해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홍보사절단 (사)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
지속적인 좌석 기부를 통해 문화생활에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음악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무대 구성 및 어린이들의 연주 지도 등 노하우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홍보사절단 프로야구 응원단장
각 프로 소속팀에서 아동 후원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시즌을 마친 후 〈어린이에게 파이팅을!〉 자선파티를 통해 뜻있는 야구선수들과 함께 스포츠 물품 경매 등으로 후원금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나눔행사에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홍보사절단 미코리더스
미스코리아 당선자 중 지속적인 재능기부활동을 희망하는 이들로 구성된 미코리더스는 재단후원사 김장 활동, 각 지역의 산타원정대 참여 등 지치지 않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Where Green Umbrellas are found

해외 지원국가

매년 국경 밖에서도 초록우산을 쓰는 어린이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국제어린이재단연맹 회원국으로 활동하며 기아와 가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내일을 밝혔습니다.



모잠비크
교육, 보건의료, 자립 지원, 지역개발(결연)
세네갈
교육, 지역개발(결연), 자립 지원
우간다
교육, 식수위생, 지역개발(결연), 보건의료
에티오피아
교육,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 지역개발(결연)
케냐
교육, 식수위생, 자립 지원, 지역개발(결연)
네팔
인도적 지원
동티모르
보건의료, 지역개발(결연)

라오스
교육, 인도적 지원
미얀마
교육, 보건의료
베트남
교육, 보건의료, 자립 지원, 지역개발(결연)
시리아
인도적 지원
스리랑카
교육, 인도적 지원, 지역개발(결연)
인도네시아
교육, 인도적 지원
캄보디아
교육, 지역개발(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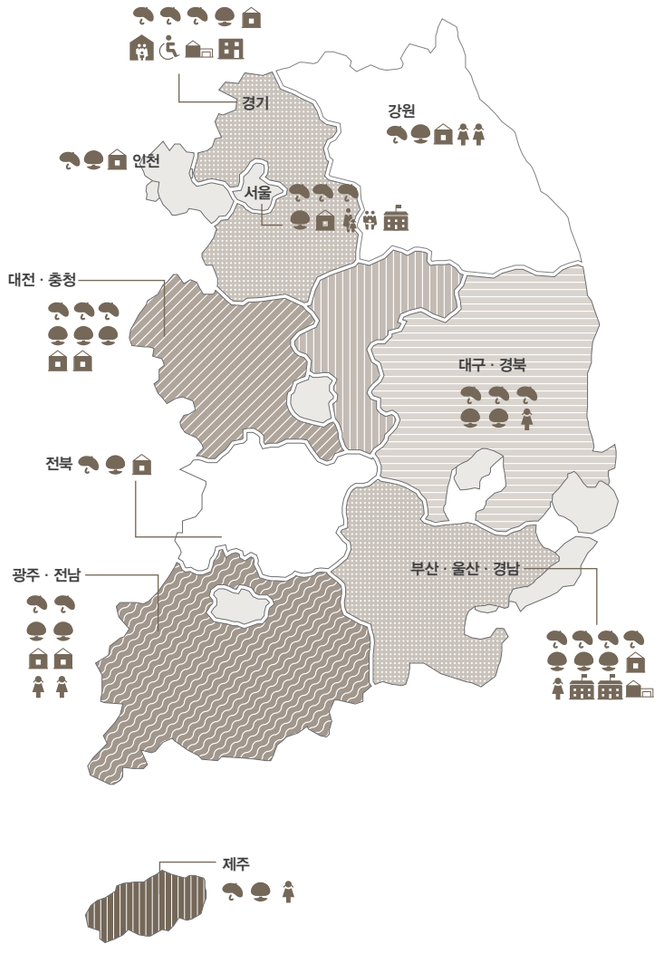
볼리비아
식수위생, 지역개발(결연)
몽골
보건의료
가나
식수위생
부르키나파소
교육, 식수위생, 지역개발(결연)
남수단
교육, 보건의료, 식수위생, 인도적 지원, 자립 지원, 지역개발(결연)
시에라리온
지역개발(결연)

*2015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국가입니다.

Where Green Umbrellas are found

국내 사업기관

재단은 국내 어린이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어린이 및 가족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를 위탁가정과 연계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아동이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
실종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 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이존
정서, 행동,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사랑학교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으로 동등하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사랑마을
중증장애아동이 재활치료와 특수교육을 받고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한사랑장애영아원
장애 영 · 유아를 위해 안정된 주거공간과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록우산 교육센터
아동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부모, 교사를 교육합니다.

초록우산 마을
서로 보살피는 공동체에서 어린이가 행복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사업을 실시한 지역입니다.

ChildFund Alliance

국제어린이재단연맹

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어린이에게 초록우산을 씌워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재단의 손길이 닿지 않아 돌보지 못한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을 위해 2002년부터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과 손을 잡고 'ChildFund Korea'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어린이재단연맹이란?
어린이가 스스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제적인 아동개발조직으로, 전 세계 56개국에서 약 1,500만 명의 취약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2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으며 회원국들은 지구촌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어린이재단연맹 회원기관(2015년 기준)
뉴질랜드 ChildFund New Zealand
덴마크 BØRNEfonden
독일 ChildFund Deutschland
미국 ChildFund International
스웨덴 Barnfonden
스페인 EDUCO
아일랜드 ChildFund Ireland
일본 ChildFund Japan
캐나다 Christian Children's Fund of Canada
프랑스 Un Enfant par la Main
한국 ChildFund Korea
호주 ChildFund Australia

■ 핵심가치
- 모든 어린이와 문화에 대한 열정과 존중
-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책무성 이행
- 국제 협력 및 지식 공유
- 어린이 권리 옹호 활동
- 어린이의 밝은 미래를 위한 헌신
- 어린이–후원자 간 징검다리 역할









어린이를 돕는 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합니다.

대표전화 1588–1940 /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 **페이스북** facebook.com/childfundkor
트위터 twitter.com/childfundkorea / **해피빈** happylog.naver.com/kwf6693.do